

모심으로 하나되는

제115주년 도일기념

포덕 164(2023)년 1월 18일

 천도교중앙총부



제115주년

道 日 기 념



포덕 164년 1월 18일

 천도교중앙총부

차례

식순	03
기념사	04
천덕송_제13장 기념송	10
천덕송_제31장 도일기념가	12
신앙통일과 규모일치	13
춘암 박인호 상사 약전(略傳)	16
춘암상사 어록(語錄)	21

기념식 식순

1. 개 식

1. 청수봉전

1. 심 고

1. 주문3회병송

1. 경전봉독_ 신앙통일과 규모일치

1. 천덕송 합창_ 제13장 기념송 / 1절-3절

1. 기념사

1. 천덕송 합창_ 제31장 도일기념가 / 1절-2절

1. 심 고

1. 폐 식

기념식 후 다함께 수련을 진행합니다.

기 념 사

국내외 동덕님,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춘암상사께서 의암성사로부터 도통을 이어 받아 천도교 제4세 대도주가 되신지 115주년을 맞이하는 도일기념일입니다.

포덕49(1908)년 1월 18일 오전 11시 의암성사는 ‘나의 심법을 춘암에게 전한다.’는 <선수문>과 함께 대도주 「선수식」을 하였습니다. 이때는 동학을 천도교로 선포하여 천도교라는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렸으며, 교회는 낱알이 발전하던 때였습니다.

춘암상사는 포덕 전 5년(1855) 2월 1일 충남 덕산군 가야산 남쪽에 있는 막동리(예산군 삼교읍 하포리)에서 부친 박명구와 모친 온

양 방씨 사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춘암상사는 동학을 믿으면 ‘차별과 착취가 없는 평등한 세상에서 질병에 걸리지 않고 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포덕24(1883)년 3월 18일 목천에 계신 해월신사를 찾아가 입도하였습니다.

춘암상사는 다음 해인 포덕25(1884)년 8월 해월신사, 의암성사와 함께 공주 가섭암에서 49일 기도를 마친 후, 의관을 정제하고 어육주초를 금하는 등 절제를 하면서 10년 동안 독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독공하는 동안에 낫자루를 베고 잠시 눈을 부찔다가는 깨어서 주문을 외우는 등 정성을 지극히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해월신사를 찾아가 가르침을 받았고 포덕에도 정성을 다하여 내포 지방에 입도하는 도인이 수천 명에 달했습니다.

춘암상사는 포덕34(1893)년 3월 보은 취회에 덕의대접주에 임명되어 내포 지역 동학교도들을 이끌었고, 동학혁명 때에는 「천불변도역불변(天不變 道亦不變)」이라는 깃발과 「척양척왜 보국안민 포덕천하 광제창생」의 깃발을 세우는 한편, 대장기에는 <덕의대접주 박인호>라고 쓰고 수만의 동학군을 지휘하였습니다.

포덕39(1898)년 1월 3일 의암성사와 함께 해월신사께 신년 문후를 드릴 때의 일입니다. 신사께서 흰 꿩 한 마리로 의암성사와 겸상을 차려 주면서 서로 일치(一致)하라는 묵교(默敎)를 내린 후부터, 상사께서는 의암성사 앞에서는 절대로 담배도 피우지 않고 평소에 농을 하던 말도 높임말로 바꾸었습니다.

포덕40(1899)년 3월 10일 의암성사로부터 춘암이란 도호를 받았는데 의암성사가 내린 첫 번째 도호였습니다. 그리고 포덕73(1932)년 교회에서 존호를 ‘상사(上師)’로 봉정하였습니다.

춘암상사는 성품이 강직하여 한번 마음으로 정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굽힐 줄을 모르고 그대로 밀고 나가 완성을 보았다고 합니다. 의암성사는 평소 춘암상사에 대해서 “춘암 대도주는 생각하는 것은 나만 못하지만, 대도를 지키는 데는 내가 춘암만 못하다.” “춘암은 밤에 만져 보아도 도(道) 텅어리이다.” “내가 한강을 걸어서 건너라 하면 춘암 대도주는 서슴없이 걸어 들어간다.”라고 할 정도로 의암성사의 춘암상사에 대한 믿음은 대단하였습니다.

축성이 아무리 잘 되어도 수성을 하지 못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동학혁명 이후 수십 만 명의 희생을 내고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진 교단을 수습하여 천도교로 다시금 축성한 것이 의암성사라면, 이 축성된 교단을 성장시키고 수성한 것은 바로 춘암상사라고 하겠습니다.

삼일운동으로 천도교에서는 의암성사와 춘암상사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 대부분이 투옥되었으며, 전국 각지에서 붙잡힌 교인들이 1,300여 명에 달하였습니다. 거기다가 경찰의 감시가 한층 심해져 교회 활동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3·1운동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큰 역할을 하였던 천도교중앙대교당을 포덕 62(1921.02.28)년에 준공하였습니다.

포덕78(1937)년 12월 초 상사께서 누워 계실 때 비몽사몽간에 왜 병들이 군화를 끌고 울면서 압록강을 건너오는 것을 보시고, “조선 독립의 징조로다.”하시고 일제 멸망을 위한 특별기도 실시를 밀명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나 멸왜기도운동이 발각되어 3백여 명이 검거되었고 춘암상사도 병상에서 심문을 받았습니다.

춘암상사께서는 포덕81(1940)년 4월 3일 분열되었던 교회가 합동한다는 소식을 듣자 “교회가 합동한다고 하니 이제 여한이 없다.”라

는 말을 남기고 내수동 자택에서 향년 86세로 환원하셨습니다.

4월 7일 오전 11시 대교당에서 영결식 후 1천여 명에 달하는 조문 행렬이 이어지며 성스러운 장례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춘암상사는 암울한 시대 상황을 감내하면서 동학혁명 이후 해월 신사와 의암성사를 도와 교단 재건에 성심을 다하였으며, 삼일운동 이후 어려움에 부닥쳐 있는 교단의 극한상황 속에서 교인들에게 신앙심을 일깨우려 노력하였습니다. 우리는 의암성사의 유훈을 절대적으로 따르며 실천공행으로 대도를 수호한 춘암상사의 뜻을 잘 이어 받아야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과학이 극도로 발달하여 사물이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안방에서 지구 반대편 사람과 대면 통화도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술의 발달과 다르게 사람들 마음은 점점 멀어져 가고 이기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투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여 전쟁을 도발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행위이고 도덕은 사람 살리는 기틀입니다. 스승님들께서는 세상이 어지러운 때에는 수도에 더욱더 힘써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학가>에 “쇠운이 지극하면

성운이 오지마는 현숙한 모든 군자 동귀일체 하였던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때만 기다리기보다 동귀일체로 하나 되어 성운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국내외 동덕님 여러분,

스승님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지상천국 건설에 매진합시다. 오늘은 뜻 깊은 도일 기념일입니다. 행복한 기념일이 되기를 심고 드리며 기념사에 대합니다.

고맙습니다.

포덕 164(2023)년 1월 18일
천도교 교령 박 상 종 심고

제13장 기념송

1. 천 - 은 이 망 극 하 여 경 신 사 월 초 오 일 에
 2. 한 - 올 님 하 신 말 씀 개 - 벽 후 오 만 년 에
 3. 나 도 성 공 너 도 득 의 너 회 집 안 운 수 로 다

1. 글 로 어 쨌 기 록 하 며 말 로 어 쨌 성 언 할 까
 2. 네 가 또 한 침 이 로 다 나 도 또 한 개 벽 이 후
 3. 이 - 말 씀 들 은 후 에 심 - 독 회 자 부 로 다

1. 만 고 없 는 무 극 대 도 여 몽 여 각 득 도 로 다
 2. 노 이 무 공 하 다 가 서 너 를 만 나 성 공 하 니
 3. 무 극 대 도 닷 아 내 니 오 만 년 지 운 수 로 다

후렴



기 장 하 다 기 장 하 다 이 내 운 수 기 장 하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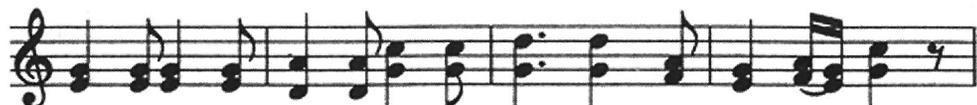
중 을 시 고 중 을 시 고 이 내 신 명 중 을 시 고

도일기념가

Andante



1. 기 뵈고 나 오 늘 은 도 일기 념 일 -
2. 기 뵈고 나 오 늘 은 도 일기 념 일 -



춘 암상 사 승 통 하 여 대 도 주 되 신 - 날
춘 암상 사 승 통 하 여 대 도 주 되 신 -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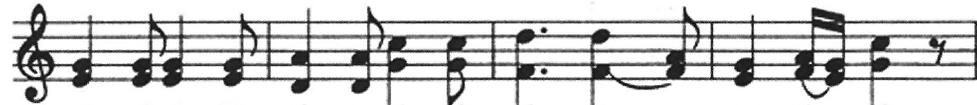
스 승님 의 덕 - 화 는 크 고 도 높 - 아 -
스 승님 의 도 - 품 은 사 해 에 념 - 처 -



우 러 러 보 - 아 도 가 - 없 어 라 -
우 러 러 볼 - 수 록 태 산 같 아 라 -



덕 산 의 맑 은 정 기 천 도 의 꽃 내 음 -
총 의 의 굳 은 기 개 사 인 여 천 향 내 음



멀 왜 운 동 영 도 하 여 민 족 - 구 했 - 네
자 나 깨 나 팔 십 평 생 대 도 - 지 켜 - 네



(후렴) 후 천 개 벽 새 세 상 이 어 주 신 춘 암 상 사 념



우 리 도 그 - 정 성 따 르 오 리 - 다 따 르 오 리 - 다 -

信仰統一과 規模一致(신앙통일과 규모일치)

각자가 자기의 습관천을 믿지 말고, 오직 자아본래의 한울님을 믿는 것으로써 신앙을 통일하라.

교회의 전체 행복은 교인의 신앙통일과 규모일치가 되는데 있느니라.

신앙통일은 먼저 정신통일에서 시작 되는 것이니, 경전의 문구만을 따져서 연구하지 말고 오로지 대도의 진리를 직각하는데 노력하여, 조용히 한울 땅이 생기기 이전의 소식을 들으라.

다음은 규모일치니 규모일치는 곧 행동통일이니라.

각자 자기가 아는 지식의 힘으로 판단하여 제 마음대로 했다 말았다 하지 말고 오직 사회(교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정된 규범을 절대 엄수하라.

가족에는 가족사회 국가에는 국가사회 교회에는 교회사회 인류에는 인류사회가 있으니, 우리교회의 인내천의 일대목적과 성신환신·규모

일치 · 지인공애의 삼대강령과 성경신법 사과와 주문 · 청수 · 시일 · 성미 · 기도의 오관실행은 교회로서 제정한 유일한 규모니라.

세계는 넓은 바다와 같고 우리 교는 기선과 같으니, 교인이 교회생활하는 것은 기선 위에서 해상 생활을 하는 것과 같으니라. 기선은 구십구분을 물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과 같이 우리 교인은 구십구분을 한울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니라.

교인으로서 교회의 덕화를 알지 못함은 요순 때에 요순의 덕화를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나의 목적인 바와 여러분의 목적인 바가 이미 같고, 여러분의 목적인 바와 대신사의 목적인 바가 또한 같은 것이니, 같은 목적을 달성하려면 정신이 일치해야 하느니라.

우리의 본래 정신이 꼭 일치하고 보면 천하가 달려들어 움직이고자 해도 감히 움직이지 못하느니라.

교인으로서 만일 이러한 진리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목적을 어떻게 달성하겠는가.

목적달성에 희망이 있는 사람은 먼저 진실하고 일치한 정신으로 과

거의 정신을 쇠신해야 하느니라.

우리가 항상 지켜야 할 조건은 신앙을 구심구분으로 하고 규제를 일
분으로 할 것이니, 교회에서 제정한 일분의 규제를 한개 자기의 지력
으로 판단하여, 만약 이것을 준행치 않으면 이는 교인 자격을 상실하
는 것이다.

일분의 규제를 위반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심구분의 신앙을 할 수 있
겠느냐?

우리 교의 중요한 규제는 오관실행이니 교인된 사람은 누구나 이것
을 실지로 체행하라.

춘암 박인호(春菴 朴寅浩) 상사 약전(略傳)

- 포덕 전 5(1855)년 충청남도 덕산군 양촌면 막동(예산군 삽교읍 하포리 114)에서 부친 밀양박씨 박명구공과 모친 온양 방씨 사이에서 탄생하시다. 아명은 용호, 자는 도일, 호는 춘암이시다.
- 포덕 5(1864) 10세에 한학에 입문하시다.
- 포덕 6(1865) 11세에 의령 남씨 부인을 맞아 혼인하시다.
- 포덕 9(1868) 상사께서 지가서와 의서를 공부하시다 중지하시고 농업에 종사하시다.
- 포덕 24(1883) 29세에 목천으로 해월신사를 찾아가 동학에 입도하시다. 입도한 직후 해월신사를 배알할 때 의암성사를 처음 만나시다.
- 포덕 25(1884) 해월신사의 명으로 의암성사와 함께 공주 가섭암에서 49일 기도를 하시다. 49일 기도 후 집으로 돌아와 의관을 정제하고 어육주초를 금하고 주경야독으로 10년을 한정하고 취침할 때 낫자루를 베고 잠시 눈을 부치는 정도로 피나는 독공 수련을 하는 한편, 해월신사를 찾아가 교리를 공부하시면서 충청도 지방의 포덕에도 주력 하시다.
- 포덕 24(1893)년 2월 대신사의 신원을 위한 광화문 복합 상소에 의암성사를 비롯한 강시원 손천민 김연국 등과 함께 교도들과 상경하여 봉소하시다. 3월 해월신사의 명으로 대신사 신원운동을 위해 보은 장내에서 회집하자 상사께서 수천의 교도와 함께 덕의대접주로 참가하시다.
- 포덕 25(1894)년 해월신사의 명으로 동학혁명에 참가하시어 덕산 창의 예산 언천 당진 서산 태안 홍주 남포 등지에서 기포한 동학군 5만을 지휘 하시다.
- 포덕 39(1898)년 1월 3일 상사께서 의암성사와 함께 해월신사께 신년 문후를 드릴 때,

신사께서 동자로 하여금 흰 꿩 한 마리를 마련토록 하여 의암성사와
 겸상을 주시니, 이는 필시 의암성사와 일치하라는 묵교임을 깨닫고
 식사 후에 의관을 정제하고 의암성사께 배례한 후에 이후로는
 스승으로 모시겠다고 하며, 이때부터는 성사 앞에서는 금연은 물론
 농담도 일체 하지 않으시다.

- 포덕 40(1899)년 2월 23일 의암성사께서 <입도문>을 지어 상사에게 맨 처음으로
 「입도식」을 거행하도록 하시다.
 3월 10일 의암성사께서 솜뭉치는 묶어서 크게 쓰신 춘암(春菴)이라는
 도호를 받으시다.
 7월 20일 상사께서 경도주 되시다.
- 포덕 41(1900)년 해월신사 묘소를 송파에서 광주 원적산으로 이장 하실 때,
 상사께서 홀로 신사의 유골을 광주까지 운구하시다.
- 포덕 42(1901)년 3월에 의암성사께서 외유하실 때, 상사께서 교무를 맡으시고 성사의
 외유에 소요되는 여비 등을 조달하시다.
- 포덕 45(1904)년 4월 상사께서 흥병기와 일본으로 건너가 성사와 개혁운동을 협의하시고
 귀국하여, 7월에 진보회를 조직하고 하루 만에 16만 회원들이
 단발흑의를 단행하는 등 「갑진개혁운동」을 주도하시다.
- 포덕 47(1906)년 1월 5일 성사께서 일본에서 한국하여 상사를 교장에 임명하시다.
 2월 12일 경도사 되시다.(교장, 중앙총부고문, 금융관장, 경도사 겸임)
- 포덕 49(1908)년 1월 18일 의암성사로 부터 종통을 계승하여 제4세 대도주 되시다.
 6월 10일 의암성사의 명으로 교리강습소를 개설하여
 수백의 교역자를 양성하시다.
- 포덕 51(1910)년 8월 15일 <천도교회월보>를 창간하시다.

9월 중앙교당을 송현동에 신축하시다.
 12월 보성전문학교, 보성중학교, 보성초등학교, 동덕여학교,
 용산문창학교, 마포보창학교, 대구명신여학교, 등 7개교를 인수하고,
 용산양영학교, 양덕여학교, 전주창동학교 등에는 보조금을 주었으며,
 청주종학학교를 설립하고, 출판사 보성사를 운영하여
 문화운동의 기초를 세우시다.

포덕 52(1911)년 4월 성경신법(誠敬信法) 사과(四科)와 주문, 청수, 시일, 성미, 기도 등
 오관(五款)을 제정하여 반포하시다.

포덕 53(1912)년 1월 19일 중앙에 종학강습소를 설립하시다.
 4월 도선사에서 지방두목 오백 인을 7차에 걸쳐 연성토록하시다.
 6월 18일 우이동에 봉황각을 건축하여 교인수련을 위한
 수도원으로 개설하시다.

포덕 55(1914)년 1월 2일 성사께서 대나무에 솜뭉치를 묶어서 그리신
 〈일지춘매(一枝春梅)〉 한 폭을 오세창에게 주시며 “
 후일 춘암대도주에게 주라” 하시다.
 4월2일 오후5시 25분, 성사께서는 춘암대도주이하 두목 70여인을
 재동 자택으로 모이게 한 후 “대신사께서는 성령 출세하시어 우리들
 성령 속에 계시다”는 설법과 함께 상사에게 명하여 붓을 잡아
 〈법문〉을 받아쓰게 하시고, “이것은 비록 내가 생각한 것이나
 춘암대도주가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시며 청수를 봉전한 후
 대도주이하 두목들에게 주시다.
 7월 각 지방에 37개 대교구를 설치하시다.
 10월 30일 보성학교 신축교사를 낙성하시다.

- 포덕 56(1915)년 8월 상춘원과 만화정을 2만원에 구입하여 성사께서 지내도록 하시다.
- 포덕 57(1916)년 상사께서 특신 교인들에게 천훈장을 수여하시다.
- 포덕 59(1918)년 1월 18일 「천도교 제4세 대도주 승통 제10주년 기념식」을 맞아
 의암성사께서 대도주의 위통에 대해 나중에 시비가 있을까 걱정하여
 친명을 내려, '이 대도주의 위통은 한울님이 신사에게 전수하신 동일한
 심법이니 교인여러분은 믿으라'는 내용으로 공포(公布)하게 하니,
 그 내용을 천도교월보(1918년 2월호)에 특필하다.
 12월 경운동 대 교당 건축 기공식을 거행하시다.
- 포덕 60(1919)년 2월 28일 의암성사께서 「삼일독립운동」을 거행하시며 춘암상사께서는
 교회사를 당부하는 〈유시문〉을 내리시다.
 같은 날 보성사에서 독립선언문과 조선독립신문을 인쇄하다.
 3월 1일 삼천만 동포가 한마음 한 뜻으로 조선의 독립을 선언하다.
 3월 10일 상사께서 삼일운동에 관여한 건으로 피체되어 서대문감옥에서
 1년 8개월간 옥고를 당하시다.
- 포덕 61(1920)년 10월 21일 의암성사께서 출옥하시다.
 10월 31일 춘암상사께서 출옥하시다.
- 포덕 62(1921)년 2월 28일 경운동 대교당 낙성식을 거행하시다.
 4월 5일 천일기념일을 맞이하여 〈천도교서〉를 발간하시다.
 12월 19일 대헌이 종헌으로 변경되어 대도주가 교주로 변경되다.
- 포덕 63(1922)년 1월 18일 교주취임식을 거행하시다.
 5월 19일 의암성사께서 환원하시자 주상(主喪)으로서
 6월 5일 장례식을 마치시다.
- 포덕 65(1924)년 10월 28일 「대신사 출세100년 기념관」을 건립하시다.

- 포덕 68(1927)년 2월에 조직된 신간회에 교단이 참여하여 창립자금을 제공하고 전국 지방교구 조직을 통해 신간회 운동을 전개하시다.
8월 14일 단전(單傳)으로 전해오던 종문심법을 일반교인에게 전수하는 심법전수 설법을 하시고, 정신적 교화와 사업상 기능은 원직과 주직의 협동으로 진행하도록 하시다.
- 포덕 72(1931)년 8월 14일 지일기념을 맞아 춘암상사께서 〈정수월집의춘(正水月執義春)〉의 법문을 전국의 교인들에게 수여하시다.
- 포덕 73(1932)년 춘암상사 78세에 존호를 '상사(上師)'로 봉정하여 공포하다.
- 포덕 77(1936)년 8월 13일 교주제를 대한인 대도주제로 복구하다.
- 포덕 78(1937)년 12월 21일 상사께서 「멸왜특별기도」를 실시하라는 밀명을 내리시다.
- 포덕 79(1938)년 1월 전국의 교인들이 '개같은 왜적놈을 한울님께 조화받아 일야 간에 멸하고 하루속히 조선독립을 달성 하겠다'는 멸왜기도를 하다.
4월 2일 「멸왜특별기도」이 발각되어 중앙교회 및 지방교회의 교역자와 교인 등 300여명이 왜경에 피검되다.
- 포덕 81(1940)년 향년 86세, 4월 3일 오후 3시 15분, 분열되었던 교회가 4월 4일을 기하여 합동한다는 소식을 들으시며 내원동 자택에서 환원하시다.
임종 시까지 시천주 주문 외우는 소리가 그치지 아니하시다.

춘암상사 어록(語錄)

춘암상사는 1910년대에 의암성사와 같이 가회동에서 살다가 삼일운동 후에는 살던 집을 처분하여 교회 재정에 충당하고 동대문 밖 상춘원에서 살았다. 그러나 교회 형편이 어려워 상춘원까지 넘어가자 1933년 황해도 교인 홍명희가 마련해준 수창동(내수동)에서 1940년 환원할 때까지 살았다. 내수동 집은 각 지방에서 상경하는 교인들이 찾았으며 이들 중에는 며칠씩 유숙하였기 때문에 고등계 형사가 항상 감시하였고 때로는 가택수색을 당하기도 하였다. 춘암상사의 어록들은 대부분 이런 때에 교인들에게 훈화로 남긴 것들이 많다.

(『천도교월보』, 『춘암상사택일지』, 『신인간』 등에서 발췌)

- 성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은 스승에 대하여 송배는 할지라도 스승에게 의뢰하지는 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 봄비가 아무리 만물을 자라게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뿌리가 없는 나무는 꽃을 피

우게 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스승님의 덕이 아무리 두터울지라도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 앞으로 천도교가 잘되고 못 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스승님께 달려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니 우리는 참으로 도를 잘 닦아야 합니다.

(1921년 4월 1일 가회동 자택, 천일기념을 맞아 상경한 두목들에게)

- 연월성을 꼭 잘 해야 합니다. 5만년 대 사업이 잘 진행하여 나아가는 것은 비단 중앙간부에게만 있지 아니하고 오직 지방의 모든 동덕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천도교를 나의 가사로 알고 믿으면 그 날로 성공입니다. 광제창생의 방법이 3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확신하는 것이요, 둘은 한울님에게 일임하는 것이요, 셋은 주인(내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사께서 춘삼월 호시절이라고 말씀하시던 그 시절이 머지않아 다다를 것입니다. 굶는다 해도 마음을 잃지 않고 나아가면 그 자리에 도착할 것입니다.

(1932.4.4.)

- 성심(性心)을 둘로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재심리(性在心裡)하고 있습니다.

몸이 유형하면 성품이 마음속에 있고(身在有形 性在心裡)

몸이 무형하면 마음이 성품 속에 있습니다.(身在無形 心在性裡)

생각해 보세요. (천도교월보 1932.6월호)

- 해월신사 시대에 의암성사께서 식고(食告)의 뜻을 물은 즉, 해월신사께서 말씀하시길 도를 깨닫고서야 식고의 진리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춘암상사께서 제정하여 반포 주지토록 하신 <식고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천도교월보 1932.7월호)

생각하시는 모신 내 한울님이 본래 오신 한울님을 받드셔서
먹고 굴신 동정하는 것이 곧 나인 줄을 투철히 깨달은 고로
모신 내 한울님의 은덕 기리 잊지 않습니다.

- 남의 험담을 일체 하지 마십시오. 인내천이라고 하는데 사람을 대하여 불경의 험담을 하고 사람을 어찌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대신사와 해월신사가 한 방에 잠을 자다가 해월신사가 대신사 배위에 두발을 올려 논 것을 알고는 황송무지하여 “어째서 선생님이 저를 깨우지 않았습니까?” 하고 묻자, 대신사 말씀하시길 “내 너를 깨우면

한울님 놀래실까 깨우지 못했다”고 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남하고 승강이 하지 말고 사람을 욕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유형한 한울님인데 섬기기 쉬운 유형한 한울님인 사람을 섬기지 못하고 어떻게 무형한 한울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대신사의 언행을 생각하고 생각하십시오.

(천도교월보 1932,7월호)

- 분을 내지 마십시오. 한 번 분을 참지 못하면 그 시간에는 도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일시의 분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생긴 도는 2~3개월이나 1년을 지내고서야 보충이 됩니다. 그러니 어찌다 한 번씩 내는 분으로 도를 깨닫지 못하면 늙어서는 어찌하겠습니까. ~ 앞으로 천도교가 아니면 살 길을 헤쳐 나가지 못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꼭 두고 보십시오. 도를 잘 닦으십시오. 주문을 읽는 가운데 천지기운이 가득히 차 있습니다. 항상 한울님과 나를 이분(二分)시 마십시오. 내 몸에 한울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먹고 굴신 동정하는 것이 곧 모신 내 한울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1932.12.23.)

- 해월신사께서는 “안성장꾼을 7일만 꿈쩍 못하게 하면 온 나라가 큰

난리가 날 것이다”라고 하셨고, 의암성사께서는 “한울님이 3일 동안 자유 줄 날이 있다고 하였는데, 사람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서양 사람을 거꾸로 달아매면 행복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1936.5.18.)

- 내가 깨달은 후에 진리를 설명해야 교인들이 알아들을 것입니다.

(1936.5.1.)

- 사람의 욕심과 모사(謀事)로는 절대로 천도교 일을 하지 못하고 천심(天心)이어야만 합니다.

(1936.7.8.)

- 도를 알려면 먼저 내가 나 된 이치를 투철히 알아야 합니다.

(1936.8.3.)

- 신·성사께서 사람이 굴신 동정하는 것이 조화이고 별다른 조화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육신 동정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다른 일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아니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절대로 다른 조화가 있는 줄로 생각하지 말고 육신 동정하는 것이 조화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937.2.25)

- 교인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내가 어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교세를 보면 재정이 미흡하여 교세가 미약한 것 같으니까 도(道)가 없는 줄 알고 신앙이 미약한 사람도 혹 있겠으나 절대로 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가 없게 되면 한울님이 없게 될 것이니 어찌 한울님(천지)이 없어질 이치가 있겠습니까. 한울님이 없으면 나도 없고 세상도 또한 없는 것입니다. ~ 한신이 대장이 되니 한나라 사람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인들도 불의에 도통하는 자가 속출할 것입니다. ~ 사람을 속이지 마십시오. 거짓말을 한번 하면 십년공부가 무효가 되며 또 십년을 다시 공부해야 합니다. ~ 천하만사는 생각과 실재가 다릅니다. 성패 득실은 진리에 맡겨 두고 결과를 짓는 데는 실행이 있어야 됩니다. 실행이 없는 결심은 공상이고 결심이 없는 실행은 요행입니다. 천만 최악은 공상(空想)과 요행(僥倖)에서 일어나는 것이니 우리의 임무는 무엇보다도 진리 그것 때문에 일생을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성공이요 진리가 아닌 성공은 영원한 실패로 돌아

가는 것이니 현명한 동덕님들은 기리 인식하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마치 손으로 물건을 쥐고 있는 것과 같으니 손에 든 물건을 놓으면 그 물건은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한울님의 간섭과 영기(靈氣) 중에서 사는 것입니다.

(1937.3.12. 문안 인사차 찾아온 최동근에게)

- 서로 시기하지 마세요. 서로 과실을 말하며 시비하고 다투지 마세요. 시비할 시간이 있으면 주문(呪文)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세요. 대현에 대하여 교인들 스스로가 책임을 다하세요.

(1938.1.6. 멀왜특별기도를 앞두고)

기타

- 참이면 살고 거짓이면 죽습니다.
- 만사는 시기가 있나니 오직 한울님이어야 합니다.
- 유형한 사람을 섬기지 못한 사람이 어찌 무형한 한울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 제 몸에 모신 한울님을 찾아 한울님이 되어야 합니다.
- 항상 한울님과 나를 둘로 보지 마십시오. 내 몸에 꼭 한울님이 모여져 있습니다. 먹고 굴신 동정하는 것이 곧 내 한울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 염염불망하여 항상 한울님 생각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 한울님은 정성이 지극한 사람과 친합니다.
- 여러분은 가사를 객체로 삼고 천덕 사업을 주체로 삼으세요.
- 도를 잘 닦으세요. 주문 읽는 그 가운데 천지 기운이 가득 차 있습니다.
- 우리 교인들이 모두 한울님이 되어 마음만 통일된다면 무슨 일이든 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 천하없어도 제 한울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 사람이 물건은 만들지만 곡식은 만들지 못합니다.
- 사람의 공功은 알기 쉬우나 한울님의 공(功)은 알기 어렵습니다.
- 제 할 일 다 하고, 잘 잠 다자고 도는 언제 닦겠습니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57 수운회관 우)03147
www.chondogyo.or.kr e-mail webmaster@chondogyo.or.kr
Tel +82-2-732-3956 Fax +82-2-739-4533